

아버지의 도움

겨울이 되면 어릴 때 아버지와 함께 등산을 자주 다녔던 것이 생각나곤 한다. 너무 어려서 그곳이 북한산성 있었는지 아니면 남한산성 있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산을 어디서나 오를 수 있었던 그 오래 전 겨울에도 주말에 등산을 올라갔다. 어렸지만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겨울 눈 덮인 산을 보여주고 싶었던 모양이다. 눈이 많이 날인데 산 위 성벽 옆으로 가파른 길이 나 있었다. 보통 등산길이었는데 그곳을 따라 올라가서 목적지까지 가야했던 것 같다. 그런데 생각보다 그날 눈이 많이 왔고 올라가는 길은 미끄러웠다. 아버지께서 미끄러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눈길과 빙판길에 안전을 도와주는 장비인 ‘아이젠(Eisen)’을 달아 주셨던 기억이 있다. 그런데도 길은 가팔랐고 눈이 많이 와서 매우 미끄러웠다. 어린 나는 많은 노력을 했지만 위로 올라 갈수록 더 힘이 들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미끄러지고 말았다. 아마 그리 위험한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가셨겠지만 어린 나에게는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좁은 경사 길에서 미끄러지기 시작해 이제는 죽었구나 생각할 즈음에 아버지께서 미끄러져 내려오는 나를 얼마 떨어진 아래에서 받아 주셨다. 그리고 같이 미끄러졌다. 아버지와 나는 잠깐이었지만 같이 미끄러지면서 결국에는 크지 않은 나무에 아버지 다리가 걸려 멈추게 되었다. 그 때에 나는 눈앞이 캄캄했지만 나를 보고 많이 웃으셨던 아버지가 생각한다. 그 후로는 아버지가 계셔 늘 든든했고 다른 산으로 등산을 가더라도 늘 나를 먼저 앞세우시며 길을 알려 주셨던 아버지가 계셨기에 아직도 높은 산에 대한 그리움과 가능할지 모르지만 언젠가 한 번 가고 싶은 북가주(Northern California)에 있는 높은 산에 대한 꿈이 있다.

이 생각이 날 때면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생각한다. 내가 고아와 같았을 때에 품으시고, 내가 미끄러져 죽을 것 같을 때에 함께 하시며 나를 안아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그러한 나를 보고 웃으시며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분이라는 체험이 있는 대도 불구하고 나는 늘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을 때가 많다. 분명히 내가 미끄러질 때에도 나를 붙잡고 함께 미끄러지는 듯하지만 구해주시는 분이심을 아는데도 걱정과 근심은 따로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함께하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함께하시지 않았다면 벌써 죽을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 보혜사로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며 성령님으로 함께 하신다. 걱정 할 것도 낙심할 것도 실은 없다. 그저 하나님께서 가자고 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가면 되는 것 아닌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요한 2서 1장 3절)고 말씀하신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 하셨다. 2020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실 것을 믿는다.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갈 때에 걱정과 근심은 떠나간다. 결국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